제31차 ISO/COPOLCO 인도(델리) 총회결과

박 성 유
안전품질정책과 연구관
02-509-7239

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안전, SR(사회적책임) 등 소비자관련 국제표준화정책을 개발하는 위원회임
*COPOLCO(소비자정책위원회) : Committee on Consumer Policy

Ⅰ. 출장개요

○ 출장목적

- ISO/COPOLCO(소비자정책위원회)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소비자표준정책 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
- "사용자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지침"에 대한 프로젝트 위원회(Project Committee) 간사국 수임

* 우리나라가 '05년부터 의장국으로 활동 중 (의장 : 김재옥 소시모 회장)

○ 출장지 및 출장기간

- 출 장 지 : 인도 뉴델리(BIS : 인도표준원)
- 출장기간 : '09. 5. 23 ~ 5. 31(9일간)

○ 출장자 : 안전품질정책과 박성유 연구관, 소시모 김재옥 회장 등 7명

○ 회의일정

일자(요일)	회 의 내 용
5.25(월)	· 작업반회의 · 테스크그룹(Task Group) - 제품안전 작업반(Product Safety) - 소비자 참여 작업반(Consumer Participation) - 브레이닝 작업반 (COPOLCO 개도국 그룹) - 소비자관점에서의 우선순위 작업반(Priorities on Consumer) -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작업반(Global Market) - 국제소비자기구 회의(Consumer International) - 아시아소비자네트워크(ANCO)
5.26(화)	· COPOLCO 워크숍 - 주 제 : 상호 호환성-적합하가, 작동하는가, 표준이 유용한가?
5.27(수) - 5.28(목)	· 제31차 COPOLCO 총회

Ⅱ. 주요 회의내용

가. 회의개요

○ 회의명 : 제31차 ISO/COPOLCO 인도 총회
○ 장 소 : BIS 국제컨퍼런스 센터
○ 주 최 : BIS(Bureau of Indian Standards)
○ 총회 참석자 : 27여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약 100여명

* Smt, Pratibha Devisingh Patil 인도 대통령이 총회 개최 축하연설

나. 주요 회의내용

□ 총회 주요내용

○ 의장, 간사보고
- ISO 회장 불참으로 COPOLCO간사가 대신 ISO 회장의 메시지 전달
- 제30차 COPOLCO('08. 5월 서울에서 개최) 총회에서 결정한 총 29개 결의사항에 대한 회의록 승인 및 검토
- ISO총회, DEVCO회의,전략상임이사회회의 및 COPOLCO/DEVCO 교육·훈련 등에 대한 강과, COPOLCO 회원 현황 및 2008년도 총회 결의안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

○ Copolco의 활동범위 확대 논의
- ISO 이사회가 사회적 관여분제에 대한 ISO 작업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COPOLCO의 범위 및 참여 확대를 고려하도록 요청한 사안을 고려하여, COPOLCO가 21세기에 소비자 및 기타 공공 이익에 관여하는 넓은 범위의 이슈를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을 인정함
- ISO회원들이 COPOLCO에 참여하고 동 작업에 대한 소비자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하며, COPOLCO에 국가 대표단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함

○ ISO PC 239(네트워크 서비스 요금 청구) 및 ISO PC 240(제품 리콜)의 창설에 매우 만족함을 주목하고, 동 프로젝트 위원회에 아시아권 국가들 뿐만아니라 유럽, 미국, 캐나다 등 많은 ISO회원들이 참여해주기를 독려함
- 현재 우리나라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(PC239)와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(PC240)가 의장을 맡고 있음

○ '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지침' 이라는 COPOLCO 제안을 개발하기로 지정된 향후 프로젝트 위원회의 간사국을 기술표준원이 수임하겠다고 한 것에 주목하고 환영하며, 동 프로젝트의 지원을 제안한 기술표준원에 감사를 표함

○ COPOLCO 교육·훈련 및 개도국 그룹 활동, 제품안전, 소비자관점에서의 우선순위 등 작업반활동 보고

○ IEC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기기용의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신규 표준 개발을 위해 태스크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

○ 2010년 제32차 총회 개최지를 인도네시아(발리)로 확정하고 개최시기는 추후 회원국에 알려주기로 함

□ COPOLCO 워크숍 주요내용

○ 주제 : 상호호환성 - 적합한가, 작동하는가, 표준이 유용한가?

○ 발표자 : Dr. T. S. Mohan (인도 Infosys 기술㈜)

① 상호호환성 문제가 나타나는 분야
- 일 : 소프트웨어, 컴퓨터/모바일 부품, 프린터 카트리지
- 가정 : 가구&내부시설, 전기 부품, 신발&그릇
- 건강 : 혈당측정기기 & strips
- 운송수단 : 자동차 바퀴, 전화전(스파크플러그) 등
- 오락 : 전세계적 통합 리모컨, DVD 형태&플레이어
- 서비스 : 브랜드에 배타적인 개인적 수리,브랜드 배타적인 수리 부품

② 상호호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
- 브랜드 & 브랜드 구축 : 가장 큰 미결수
  - 행상인 매각: 특허 기술/전차
  -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경쟁을 막는 사업 진입 장벽
  - IP(정보 제공자)를 통한 일반 판매를 뛰어넘은 독점권 보유
  - 사업 경쟁
  - 미묘하게 속이는 사업 방식 및 관행
- IMPED 상호호환성 경쟁은 소비자들을 제품 판매에서가 아니라 서비스 판매에서 현혹함.

- 소비자 우선 · 환경 친화적 · 저비용 립서비스
- 독점 기술을 확장하려는 표준 강요

③ 상호호환성 달성 방법
- 소비자, 상호호환제품, 표준기관, 소비자단체, 정부기관 간의 연계 강화
- 상호호환성 제품/서비스 인증 의무화
- 교육, 사업, 학교, 표준기관이 상호호환성을 장려
- 상호호환성 변화를 가속화하는 공공/민간 부문 협력 추진 : 사고방식 및 제품/서비스
- 상호호환성을 위해 설계

〈소주제 2〉 상호호환성 범위 및 전반적 관점 정의

○ 발표자 : Mr. Allan Asher (영국표준원 소비자 및 공공이익 네트워크 의장)

① 상호호환성이 필요한 분야: 소프트웨어(컴퓨터, 휴대폰, 음악재생기 등 다양한 분야) 웹서비스, 전자 커뮤니케이신, 음성 메시지, 비디오클립(유투브), 상호호환이 안 되는 다운로드 itunes, 애플社 mp3파일 변환 등

② 권고사항
- 컴퓨터 소프트웨어, 커뮤니케이션 장치, 웹 정제에 대한 상호호환성 표준과 규칙 개발
- 동 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에 소비자들의 참여 도록 독려
-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

〈소주제 3〉 상호호환성 위조의 영향 및 제품안전
○ 발표자: Mr. R. A. Venkitachalam (인도 UL)

① UL 인증 마크
- 제품 샘플을 실험 및 평가 선언, UL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인증
- 제조업자와 UL 간의 후속 합정 증거임
- 자발적 마크
- 200억 UL 마크 제품에 날인

*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UL은 저비용, 대용량 제품 (예: 연장코드, 파워테이프, 어댑터 등)을 인증하며, 2008-2009년은 고위험 분류에 대한 홀로그래픽 라벨(입체영상상표) 도입하였고, 법 시행, 세관 및 국경 보호, 세계적인 정부기관, 국제경찰 등과 협력함

〈소주제 4〉 ICT 세계의 상호호환성 - 과제, 도구, 정책 관계
○ 발표자 : Steve Mutkoski (Microsoft 社)

① 상호호환성과 표준의 관계
- 상호호환성에 대한 수많은 정의 존재 (사람마다 정의가 다름)
- 청중마다 다른 목표 및 해결책이 있으므로 다양한 청중의 관점에서 보는 게 도움이 됨.
- 표준은 정보 기술 산업의 성장동력인 동시에 상호호환성을 촉진함
- 상호호환성 없이는 ICT 표준을 얘기할 수 없음
- ICT 표준을 적합한 맥락에 적용하고, 한계점과 역할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
- ICT 표준은 상호호환성을 촉진하는 하나의 도구
- 상호호환성의 도구로서 표준을 활용할 경우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계점 논의

② ICT 표준의 역학
- ICT 제품 표준 수천 개가 상호작용
- ICT 표준의 복잡성
- ICT 혁신 속도
- 표준의 개발/개정과 표준을 이행하는 제품 간의 비대칭 관계
- 사실 상 표준 vs 공식 표준

〈소주제 5〉 외부전력공급장치, 배터리 충전기, 모바일 전자기기의 상호호환성에 대한 조화된 표준 - 소비자를 위한 과제 및 기회

○발표자: Ms. Gabriela Fleischer (DIN)

① 배경
- 하나의 전력공급장치 당 하나의 제품이 사용

되고, 충전 수명이 짧으며,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여지가 없음.
- 유럽시장은 20개월 당 20000톤, 중국 시장은 36000톤이 위험폐기물로 방출되고 있으며, 자원 효율성은 감소 추세

② 상호호환성의 이점
- 소비자의 편익 증가: 연결장치가 표준화된다면 여러 전자기기가 전력공급장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짐
- 소비자 선택의 폭 증가: 연결장치 표준화는 제조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성능 좋은 충전기를 선택하도록 함
- 소비자 비용 감소 및 더욱 긴 제품 생명주기
- 에너지 사용 감소
- 자원 효율성 증가
- 전자폐기물 감소

〈소주제 6〉 상호호환성은 소비자의 지식 접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?

○발표자: Ms. Indrani thuraisingham (CI)

① 서론
- 소비자들은 사회 문화 · 과학의 성과에 지식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추구
- 지식에 대한 접근의 방해요소
  · 독점 형식으로 축적
  · DRM(디지털 저작권 관리) 같은 기술적 수단으로 그것을 가둠
  · 디지털 정보 접근을 위한 상호호환적 제품 개발 금지법

② 독점적 문서 형식은 소비자들을 속박함
- 독점형식: Microsoft word, Amazon kindle
- 개방형식: PDF, ODF-open

③ 디지털 저작권 관리(Digital Rights Management)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
- CD · 소프트웨어 저작권, DVD · 게임 영역 부호화, 특별 소프트웨어에만 사용되는 음악 파일
- DRM은 상호호환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.

④ Reverse Engineering(분해공학)
- 타사 신제품을 분해하여 구조를 분석, 설계를 역으로 탐지하는 분해공학
- 표준이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
- 표준이 실패할 경우 분해공학은 또다른 수단이 됨.
- 저작권법은 상호호환 제품의 생산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분해되도록 허용해야 함.

⑤ 결론
- 상호호환성은 지식 접근에 필수
- 표준은 상호호환성을 부분적으로 보장
-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는 표준 필요
- DRM의 사용을 반대(표준화가 되어 있더라도)
- 표준이 따르지 않는 경우 분해 공학

〈소주제 7〉 분과그룹 토의

① 가전제품 및 소비자제품에서 상호호환성이 필요한 분야
-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운드 시스템
- 의약품 정보(글자가 작아서 읽기 어려우므로 통합체제)
- 전세계적 만능 원격제어 장치 (여러 전자기기 당 하나의 리모컨)
  ex. 에어컨, TV, 휴대폰 모두 하나의 리모컨
- 전자카드 시스템
- 지하철, 버스 등의 전자 티켓 (개인정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?)
- 프린터마다 다른 카트리지
- 에어컨 필터, 청소기 먼지 주머니 등 소모품
- 전세계적 전구소켓 충전
- 전자제품 폐기(재활용 등)
- 제품 라벨링(재료, 원산지 등 정보 표기)
- 배터리

- 식기세척기 바스켓

② 전자제품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(ICT)에서 상호호환성이 필요한 분야
- 플로피디스크, CD, 자기테이프 등
- 판매직원, 판매사 등을 워드에 기록
- 배터리&충전기
- 헤어드라이어, 디지털카메라, 노트북
- 플러그&전압- 전세계적 통합 플러그
- 새사용 파워소스
- GPS 장치
- 뮤직 플레이어, 휴대폰
- 버스 및 지하철의 요금제도 통합
- 여행 시 편리한 smart card (모두 같은 체계의 요금으로 통일)
- 배터리 팩
- 멀티 휴대폰, 카메라
- 콜센터 (독점 문제 존재)

③ 해결책
- ISO/IEC/ITU가 소비자 문제에 관한 상호호환성 부분에 대해 협력
- 상호호환성에 대한 소비자 원칙 마련 - 소비자 권리 등 명시
- 안전, 복지, 건강, 품질,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호환성 이행
- 소비자 복지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옹호하는 활동 필요
- 소프트웨어 포럼 혹은 웹 논의

Ⅲ. 주요 활동성과

○ 신규 프로젝트위원회(Project Commiottee) 간사국 수임

- 금로벌시장 작업반회의(WG)에서 제안된 "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지침"을 신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, 한국이 NWIP 개발을 위한 PC 간사국을 제안하여 수인

○ 우리나라의 소비자편익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사례 홍보

- 노트북어댑터 및 LED 조명 등 표준화추진현황을 WG에서 발표하여 각국의 관심과 향후 국제표준화 추진에 힘조를 구함

○ 김재옥 COPOLCO 의장의 성공적 총회 진행으로 아국의 위상제고

- 매끄러운 국제매너 및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각국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음

○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제고 및 회원국간 유대 강화

- 국제소비자기구(CI), IEC, DEVCO(개도국), ANCO(아시아회원국) 등 관련기구, 국가와 협력 및 유대활동을 통해 아국의 위상강화에 기여

Ⅳ. 향후 COPOLCO의 주요 논의방향

○ 소비자 안전 관련 표준 업데이트
○ 상호호환성, 리콜,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 청구 등에 초점
○ 에너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
○ 경제위기 이후 금융 관련 소비자 표준 문제에 집중
○ 소비자가 관여된 지적재산권 문제에 집중
○ IT, 생명공학, 나노기술 등 신기술 관련 소비자 안전 표준화

COPOLCO(소비자정책위원회) 개요

□ 조직

○ ISO 3대 정책개발위원회(COPOLCO, DEVCO, CASCO)중 하나
○ 제품안전 작업반을 포함한 7개 작업반 활동 중
○ 회원국 : 105개 회원국 (정회원국 - 61개국, 준회원국 - 44개국)

○ 의장 : 김재옥 (소비자시민모임 회장)

* '05년 ISO 총회에서 선출, '07. 9월 ISO 이사회에서 '09년까지 연임 승인

□ 역할 및 기능

○ 소비자 입장에서 국제표준화정책 개발

○ 표준화 활동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자 참여 촉진

○ 국제소비자기구(Consumers International) 등과 국제소비자정책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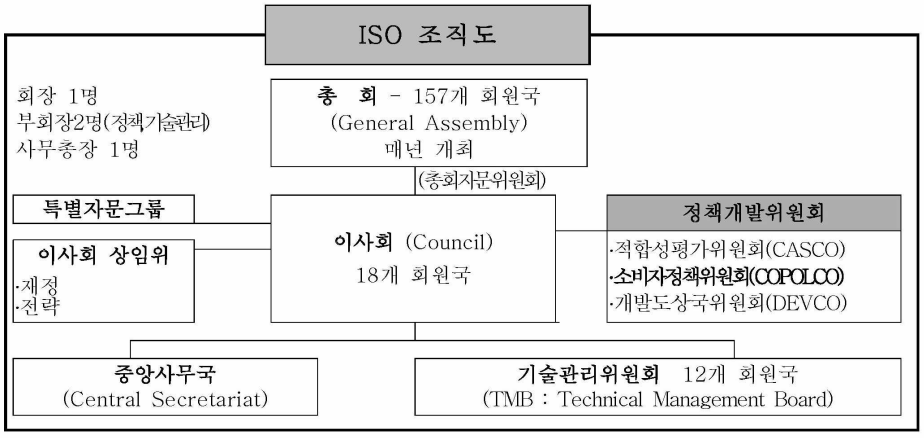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주요 활동

○ 사회적 책임(SR), 제품리콜,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 제안

○ 소비자 만족 표준 (ISO 10001, ISO 10002, ISO 10003) 개발 주도

○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 청구(Network Services Billing) 관련 국제표준 추진

* 프로젝트 위원회(PC 239) 의장으로 서울여대 송보경 교수 선출

○ 제품 리콜(Product Recall) 관련 국제표준 추진

* 프로젝트 위원회(PC 240) 의장으로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선출